

‘적자’ 서민가구 교육비 늘렸다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정규 41%·학원비 26% 증가

소득 1분위, 보건지출 21.7% ↑

주거·수도·광열비 15.7% 늘어

올해 1분기 ‘적자 살림’을 기록한 서민 가구가 교육비 지출을 3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등 보건 관련 지출의 상승 폭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85만8,389원이었다.

소비지출은 131만9,04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46만1,000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31만3,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47.2%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282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98원(35.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교육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비 지출이 41.4% 늘었고,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도 26.2% 상승했다. 두 항목 모두 모든 분위를 통틀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규교육 가운데는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이 86.8%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학원 및 보습교육 중에는 성인 학원 교육 지출

이 182.6% 증가했다.

보건 관련 지출의 증가도 서민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보건 지출은 18만3,949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2,818원(21.7%) 늘었다. 2013년 3분기(28.9%)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보건 지출 증가율(7.7%)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증가 폭이 컸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지출이 12.7% 상승했고, 보건 의료용품 및 기구 지출도 25.7% 늘었다. 입원 서비스 지출도 43.5% 늘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 역시 1분위에서 가장 큰 폭(15.7%)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요금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26.1% 늘었다. 아울러 월세 등을 포함한 실제 주거비도 6.6%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전,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

한국전력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335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할을 종합 진단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의 사례로 명실상부한 재난관리분야를 선도하는 공기업임을 입증했다.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재난대비훈련 ▲업무연속성 유지노력 ▲재난대응체계 유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고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태풍 힌남노 같은 대규모 재난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7종 지진, 지진해일, 전력수급부족, 자연재난, 태풍, 산불, 계통고장 등 대표 재난 유형별로 비상판단 기준을 수립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 점과 안전한국현에서 불시훈련을 시행해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준호 한전 안전사업부사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는 갈수록 대형·복합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편, 최근의 비상경엄체제에서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TP, ‘글로벌 휴먼기업가정신센터’ 출범 속도

I-PLEX서 준비위원회 개최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동구 동명동 ‘I-PLEX광주’에서 ‘글로벌 광주휴먼기업가정신센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가정신이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 사고를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핵심역량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산업계와 대학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센터 업무협약 ▲향후 센터 운영계획 발표 ▲지역 혁신주체들의 미래성장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그간 센터출범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중기부 및 지자체 예산 건의와 기업가정신 연수과정 커리큘럼 설계, 혁신기업 양성방안

등을 구상해 왔다.

공식출범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청소년 등 대상별 특화연수과정 및 혁신기업양성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미래지향적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전 국민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광주가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확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교류협력 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본 센터는 오는 7월 세계중소기업협회회 개막식에 맞춰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



삼성전자 모델이 ‘펫 케어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삼성 펫 케어 가전과 반려동물 사료 자동 급식기 ‘펫 피더’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삼성닷컴에 ‘펫 케어 스토어’ 오픈

펫팜족 겨냥 올인원 쇼핑플랫폼

8월 24일까지 개설 기념 이벤트

삼성전자가 급성장한 펫팜(펫+패밀리)족 시장에 맞춰 삼성닷컴에 ‘펫 케어 스토어’를 오픈했다.

펫 케어 스토어는 삼성전자의 펫 특화 가전과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료, 용품 등 전문 상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올인원 쇼핑 플랫폼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펫 모니터링, 펫 돌봄 콘텐츠, 펫 영양 관리 등 반려동물 맞춤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삼성 가전과 스마트싱

스를 연계한 스마트 펫 케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삼성전자는 ▲내장된 카메라로 반려동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비스포크 제트봇 AI ▲반려동물로 인한 알러젠, 얼룩,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비스포크 그랑데 AI ▲펫 맞춤 청정 기능을 탑재한 비스포크 큐브TM Air 펫케어 ▲견종에 맞춰 쾌적한 온·습도로 조절하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반려동물용 영상 원격 재생 기능을 지원하는 TV 등 스마트싱스 앱과 연계한 다양한 펫 케어 특화 가전을 한데 모아 펫 케어 스토어에서 선보인다.

‘아카라’의 사료 자동 급식기 ‘펫 피더’는 스마트싱스를 통해 어디서나 원격으로 급여량

을 관리하고, 몸무게에 맞는 사료를 공급해 최적화된 영양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관리해준다.

펫 케어 스토어의 개설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24일까지 ‘아이씨랩’ 에너피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비문을 등록하고 삼성 펫 케어 스토어에서 삼성 펫 특화 가전을 구매하면 삼성화재 펫 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펫 가전을 구입한 고객이 펫 케어 스토어에 포토 상품평을 올리면 펫 웨어러블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한전KDN-레드햇, 클라우드 기술 강화 업무협약

에너지 전력분야 서비스 향상

한전KDN과 레드햇은 최근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국레드햇 회의실에서 클라우드 기반 기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재문 한전KDN 미래사업개발본부장과 김경상 한국레드햇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글로벌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공분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전KDN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전문기업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으로 한층 강화된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클라우드 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한전KDN과 레드햇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너지ICT 전문기술과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환경·보안 등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및 전력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본랑농협, 폐농약병 수거 봉사활동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최근 본랑농협이 농가주부모임 회원 26명과 함께 광산구 본랑동 일원에서 농촌 환경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농약병 수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경지와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

련된 이번 폐농약병 수거 활동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지 및 마을주변에 버려진 폐농약병, 농약봉지 등을 직접 수거했다.

강로마 회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농약병

분리배출 방법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상윤 조합장은 “농번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폐농약병 등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해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농촌환경보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촌 환경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유타그룹, “올해 수주 1조원 목표”

여수서 2023 임원 워크숍

“체질 개선·내실 경영 집중”

건설, 설계, 감리·CM, 호텔레저, 신재생 에너지사업, 임대 관리 등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 유타그룹이 최근 여수 유타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2023년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올 7년간의 중장기 사업과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0여 명의 임원들은 사업부별 매출과 단계별 경영 목표, 핵심역량 과제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타그룹 정병래 회장은 2030년 수주 3조 6,000억,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진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약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철저한 위기관리도 올해 수주 1조원을 달성해 중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타그룹은 작년 약 1조

2,000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총 사업비 1,400억원 규모의 광주 상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5,000억원 규모의 여수 물류센터, 울산, 원주 등 전국 단위 건설 수주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얼어붙은 건설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1조 원을 목표로 전북 장수 공동주택, 경기도 남양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충남 금산 도시재생사업 건립 공사, 광주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등 공공사업 중심의 수주를 도모하고 있다.

호텔 레저 브랜드인 유타호텔은 1분기, 목표 매출을 초과하고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신안군 임자면 해상풍력 발전 사업 또한 공식적인 인허가를 앞둔 신사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병래 회장은 “전략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사업 체질 개선과 내실 경영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꾸준한 사업성 검토도 수주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올해 수주 달성에 이어 중장기 비전까지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연수 기자